



제목	알렉산드로스 원정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글항아리
발행일	2017. 1. 20.
저자	아리아노스 박우정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468
ISBN 또는 ISSN	978-8967353827

내용 요약

이 책은 2세 초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군사 및 행정적 능력을 인정받아 국경 지역인 카파도키아 총독을 지낸 아리아노스가 쓴 알렉산드로스의 전기이다. 아리아노스는 인내심, 상식, 인간사에 대한 예리한 이해 뿐 아니라 군사와 행정에 상당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로스 휘하의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을 주로 채택하여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아리아노스에게 있어서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지도자, 끝없는 야망에 사로잡힌 위대한 정복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을 이룩한 사람, 죄를 저지르면 후회하는 인품의 소유자였다. 저자가 알렉산드로스가 신의 혈통이라는 점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아리아노스 글의 단점은 편파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아리아노스는 그의 결점까지도 포용하거나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가령 알렉산드로스의 음주에 관해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페르세폴리스 방화도 음주 후 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다른 사가들의 기록과 달리 그런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리아노스 자신도 페르세폴리스 방화는 비상식적인 일이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사건, 그렇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 알렉산드로스 개인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가 제국을 다스리는 방식, 피정복민의 역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융합정책 등에 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